

👉 나는지정 👈

의 2011년도 상반기

목차

- > 학부장님의 여는 말씀
- > 11학번 학우들의 한마디
- > 지정인과의 소통
- > All about 도서관
- > 취업하는 지정인
- > 2011년도 상반기 세계는
- > 요건몰랐지
- > 2011년 지정의 모습
- > 편집후기

'그림비'란 순우리말로 젊은이, 청년을 뜻 합니다.

목차

I. 학부장님의 여는 말씀

II. 11학번 학우들의 한마디

III. 지정인과의 소통

1. 지식정보학부의 새얼굴, 박지영 교수님을 만나다
2. 인문대를 이끌어갈 인문대 정·부학생회장을 만나다
3. 학업과 아르바이트, 두 마리 토끼를 잡다

IV. All about 도서관

1. 학술정보관 그리고 책
2. 꿈의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을 다녀오다

V. 취업하는 지정인

1. 지정 선후배가 함께 한 취업간담회
2. 취업창업지원팀 방문기 : 우승식 주임님과 함께
3. 차세대 리더를 꿈꾸는 당신, 카네기로 오라

VI. 2011년도 상반기 세계는

1.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원전폭발...일본 대지진의 현장
2. 자유를 위해, 리비아의 어제와 오늘

VII. 요건물랐지

VIII. 2011년 지정의 모습

IX. 편집후기

학부장님의 여는 말씀

2011년 상반기 그림비 출간을 축하합니다. 또한 지식정보학부 30기인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과 지식정보학부 여러분의 건승함을 축하합니다.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은 2002년에 앞으로 대학 2.0시대가 온다고 하였습니다. 일방적인 '리드 온리(read only)'의 환경이 아니라 참여와 공유가 강조되는 웹 2.0 환경 같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유가 대학문화의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즉 여러분의 다각적이며 참여적 활동을 통하여 대학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그러한 지식을 공유하는 주체가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예언한 듯합니다. 이제 한 사회에서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저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로 비행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 선배로서 몇 가지 당부하는 말을 드릴까 합니다.

제일 먼저 당부하고 싶은 것은 꿈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꿈은 우리가 나갈 길을 밝혀주며 우리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황무지로 나갈 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간 것뿐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대학시절 당신이 준비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독수리의 날개는 폭풍이 불어도 태양을 향해 날아오르고, 잉어의 강한 지느러미는 급류의 물살과 폭포수를 거슬러 용문에 오릅니다. 순응이 아니라 역풍이 만들어내는 이 양력(揚力)이야말로 우리를 날게 하는 창조적 지성, 그 방향을 결정짓는 이성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에 마음껏 도전하십시오. 또한 새로운 도전을 그리고 이에 대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미래에 다가올 실패를 피하는 방법을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던 경험이 바로 여러분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경험입니다. 장렬한 실패는 도약의 아니 성공의 밑거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공동체의 일에 참여해보세요. 또는 어렵고 힘든 일에 자원 봉사해보세요. 땀이 배는 노동과 봉사는 우리에게 또 다른 시각과 배려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사회는 땀이 배인 경험을 지녔으며 같이 나누고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자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생들은 꿈과 낭만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아마 대학 4년 동안 자유롭게 자기를 만들어 가는 미래를 준비하는 유보된 시간이기때 이런 말을 하나 봅니다. 지식정보학부 여러분, 원대한 희망을 이루어가는 대학생들이 되도록 저를 포함하여 저희 모든 교수님들도 지원하겠습니다. 멋진 꿈을 키워보세요.

지식정보학부장
서은경

II. 11학번 학우들의 한마디

학번	이름	개강 후 소감
1114002	곽병준	생각보다 대학 수업이 재미있어서 좋아요.
1114003	곽호준	정말 재밌어서 죽을 거 같아요.
1114004	권혜진	지정 파이팅! 학교생활 너무 재미있는 거 같아요.
1114005	김가경	아오!!!! 썬나 하루하루가 너무 좋아요 따봉!
1114006	김동욱	캠퍼스가 아담해서 좋아요!
1114007	김성아	앞날이 좋아요. 너무 너무 너무나 즐겁습니다.
1114008	김소미	WoW 나 대학생이다ㅋㅋ 신난다!
1114009	김우진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엠티는 가기 싫어 졌어요.
1114010	남궁은	정말 설레고 즐거워요!!! 무엇보다 앞으로 하게 될 집부생활이 완전 기대돼요 ㅋㅋ 편집부 만세!!
1114011	남지은	학부랑 동아리 짱 재미있고, 난 대학생 ㅋㅋ 학식 빼곤 만족 ㅋㅋ
1114013	박대현	지식과 정보가 넘치는 것 같다. 정말로...ㅋ
1114014	박민희	재밌고 신나요ㅎㅎ 지정과 핫팅!!!
1114015	박정민	잘 지냈시다! 지정 화이팅!
1114016	박현우	재미있게 지냈시다.
1114017	손동렬	♡학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잘 선택 했다고 생각해요.
1114018	송민규	지정과 여러분 반가워요~!
1114019	송운호	한성대학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1114020	신광우	정말 맘에 들고 재미 있다!
1114021	신나리	생각보다 더 재미있다. 신난다.
1114022	안미현	배우고 싶던 문헌정보학을 배울 수 있게 되어서 좋고 빨리 그림비를 만 들고 싶습니다.
1114023	양서윤	고등학교처럼 이러저러한 구속 없이 내 자율에 따라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이 책임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지만 그것보다 큰 감정인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어서 좋다.
1114024	양예지	짱인데???? 완전 좋아요 신나요.
1114025	오현준	아직 적응 못 했지만, 대학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1114026	우형태	나중에 다들 웃으면서 볼 수 있으면!
1114027	유택진	굉장히 만족스럽고 즐겁다.
1114028	이다훈	시작부터 즐거운걸 보니 끝은 더욱 즐거울 것 같다.
1114029	이덕훈	대학 들어왔는데 대학을 들어온 것 같지 않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
1114030	이미영	Bravo! 신나요 신나요 *.*♡
1114031	이민영	재밌게 지내봐요^^
1114032	이유미	입학 전엔 무섭고 두려웠는데, 막상 학교 오니까 즐겁고 재미있고 새로 워요!!
1114033	임수빈	고등학교와 달라진 것이 없습뵤.
1114034	임태현	학교가 가까운 것만 괜찮다 생각했는데 와보니 건물과 사람들도 좋다.
1114035	임호영	처음 학교 왔을 땐 별 생각 없이 왔었는데, 학교생활을 하면 할수록 맘 에 들고 좋은 학교라는 걸 느낍니다.
1114036	정다혜	대학 다니는 동안 재밌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1114037	정재우	활기찬 학교에 온 것 같다.
1114038	정주용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ㅠㅠ
1114039	정호빈	다른 애들보다 늦게 온 대학이니만큼 최선을 다하고, 편집부원으로서도 부족한 실력이란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정과 파이팅! 편집부 파이팅!
1114040	정호중	열차게 공부해서 보람찬 1학기 보내고 싶다.
1114042	조재인	잘지내요. 화이팅

1114043	지영현	대학생활 너무 즐거워요!!
1114044	채혜린	모두들 재미있게 지내자 구요!
1114045	최근창	다들 재밌게 지냈시다!
1114046	최상준	수강신청 망해서 안습....ㅠ — 0시
1114047	최수현	재밌게 지내요.
1114048	한효정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어서 좋고 앞으로도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
1114049	황정현	너무 재밌어서 걱정되네요.
1114050	강필준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도전이라 생각한다.
1114051	권사빈	대학교에 오면 즐겁게 놀기만 할 줄 알았는데 학업때문에 힘든거 같아요~ㅠㅠ
1114052	김다혜	우왕~!ㅎ.ㅎ 대학생이다!!!ㅋㅋㅋㅋ 열공해야징! 핫팅!!
1114053	김보미	파이팅..난 할 수 있어..외롭지않아...ㅋ
1114054	김솔아	고등학교 때보단 자유롭지만 자유로워진만큼 책임감도 늘어나고 알바, 학점, 취직 등 고민도 더 많이 늘어났어요ㅠ
1114055	김영신	대학 오니까 과제가 너무 많아서 힘들지만 자유롭고 좋다^_^
1114056	김유진	먹고, 자고, 싸고, 술마시고 하다보니 어느새...시험기같이 코앞ㅠ
1114058	김정환	도전 한 번 해보자.
1114059	김지윤	논스톱 같은 대학생활은 거짓말이라던걸 몸소 체험...T^T 과제의 쓰나 미!!!오악...
1114060	문성훈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약간은 다른 대학생활. 하지만 신나네요.
1114061	박소현	와..드디어 대학생이다ㅠ..ㅠ!! 이제 집에서든 터치 안하고 완전 짱♡ 기대된다~
1114062	박은이	요즘 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이나 교양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1114063	박준수	매일 노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거에 충격 하지만 우리과 애들이 착해서 좋아요~~ 모든게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싫지 않는 기분이에요~~
1114064	배산들	아직 해보고 싶은게 많은데 폭풍과제에 시험이 다가오고 있어요..T.T 힘들어요!!!
1114065	서향록	학교 처음 와서는 다들 어색하구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할지 막막하기두 했어요.. 근데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동기들과 친해지구 과활동 열심히 하구요 선배님들과 서로 알아가면서 학교가 너무 재밌어요^^앞으로의 대학생활이 더 기대가 되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1114066	송용은	동기들이랑 오순도순 놀고 재밌고, 선배님들도 너무너무 좋으시고 재밌는 대학생활♡
1114067	신재열	처음 대학에 왔을때 막연하게 "아 이제 대학생이 되었구나" 하는게 머 리론 받아들여지는데 느낌상론 별로 현실감이 안가는것? 뭐 그런느낌 이었습니다 많이 다르면서도 다르지 않은 느낌이랄까... 마치 학원다니 는 느낌 그런식으로 느껴졌지요 별로 다른 학생처럼 놀거나 하지 않아서 지금까지와의 차이점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면 적당하겠네요.
1114068	안재학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재미있고 좋네요~ 과 아이들도 정말 좋구요.
1114069	안지은	솔직히 오기 전에 잘 생활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너무 좋아요! 대학>넘사벽>고등학교
1114070	안혜선	제 어른이 되서 좀 더 자유로워져서 기쁘기도 하지만 책임감이 무거워진 것 같아요..T.T
1114071	윤진웅	그냥 보통인듯 수업 재미없어요.
1114072	윤희수	고등학교때만 되어도 밀린 숙제 처리가 가능했는데 대학 과제는 벼락치기가 너무 힘들다.

1114075	이영주	고등학생때보다 훨~씬 많아진 자유시간을 내 맘대로 쓸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1114076	이은호	1학년때 누구나 논다고 누가 그랬나요... 생각보다 많이 바쁜 것 같아요~
1114077	임진섭	우리 한성대 너무 깨끗하고 시원하게 생겼어요^^
1114078	장병근	군대 생각, 알바 생각, 학점 생각, 친구 생각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졌어요.
1114080	조윤희	제가 생각한 대학생살보다 어려운게 좀 많은것 같지만, 고등학교때보다 자유로워져서 좋아요!!!
1114081	진소리	지하철에서 조금만 더 가까웠어도 좋을텐데 너무 언덕이 심한 우리학교 ㅠ입니다.
1114083	최주희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피곤하지만 고등학교 때보다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서 좋다^^
1114084	허수진	두번째 새내기! 즐겁기도 하지만 많이 피곤하고 그러네용ㅋㅋ 그래도 좋아요♡
1114085	홍선민	시간도 많고 친구들도 만나고 술도 많이 마셔서 좋아요^_^과제랑 시험만 없으면...ㅋㅋㅋ
1114086	홍수민	생각했던거랑 다른면도 있지만 그래도 재밌고 앞으로 더 기대되요ㅎ_ㅎ



< 새터에서 >
2011.2

지식정보학부의 새 얼굴, 박지영 교수님을 만나다

10강영철, 11안혜선, 11이은호



Q : 신임 교수님이시다 보니 아직 교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 어느 부분이 궁금한지 명확하지 않아서 우선 인상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78년생, 올해 34살 입니다. 결혼은 2002년에 했고 지금 3살짜리 딸이 한명 있습니다. 현재는 부천에 살고 있는데, 아이 양육 문제로 다음 달에 일산으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저는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연세대학교에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박사 과정은 2010년에 졸업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인간상은 '어떤 분야에서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입니다.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가장 존경스럽습니다.

Q : 교수로 처음 한성대에 오셨을 때 소감이 어떠셨나요?

A :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정말 기뻐했습니다. 이 기쁜 마음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Q : 한성대에 부임하시기 전에도 계속 강의를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교수가 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A : 석사 학위를 받은 후에 2년 정도 회사생활을 했습니다. 주로 웹 관련 데이터나 기업에 관한 정보를 다루는 웹 검색 엔진 개발 회사였는데, 저는 데이터의 분류나 색인과 같은 업무를 담당 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박사 학위 과정에 진학했습니다. 박사과정 중에는 연세대학교 기록보존소에서 기록물 관리를 하였고, 박사 학위를 받은 후에는 시간 강의를 하였습니다.

Q : 수업을 하시면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실텐데, 학생들과 친해지기 위한 교수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A : 아직까지는 노하우를 찾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학생들의 이름과 얼굴을 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학생들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학생들에게 질문이나 연락을 받으면 가능한 한 곧바로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즉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Q : 11학번 신입생들은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있는데, 수업하기 어려운 점이나 '이것만은 지켜주면 좋겠다.'하는 점이 있으신가요?

A : 어려운 것은 신입생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한성대학교나 지식정보학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나의 진로인가' 라는 고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많이 감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이것만은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다면, 서로가 의사소통 하는 방법을 조금씩 맞춰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게 연락을 하려면 우선 메일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주말이나 늦은 시간에 갑작스럽게 연락이 오면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을 수강하는 데에 문제가 생긴다면 솔직하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Q : 교수님께서 대학 생활을 하실 때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경험이나, 대학 시절에 경험해보면 좋은 일들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 제 대학 생활은 학년별로 조금 달랐어요. 1,2학년 때는 열심히 사회 활동을 하고, 3,4학년 때는 열심히 강의실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평소에 도서관을 좋아해서 1학년 때부터 도서관 관련 모임이나 학생회 활동을 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제가 얻은 것은 많은 것 같습니다. 학교 내외부의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관련 책도 많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경험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Q : 교수님의 대학시절의 장래희망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A : 사실 학창시절엔 교수가 아닌 사서가 되고 싶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일하고 싶어서 도서관 관련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도서관 대회 자원봉사도 하고, 도서관 근로 장학생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박사 과정에 진학하면서 생각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 관련 부분은 계속 좋아했지만, 자연스럽게 사서에서 교수 쪽으로 꿈이 바뀐 것 같습니다.

Q : 앞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교수님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A : 의사소통이 잘 되는 선생님, 동기부여를 해줬던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물고기를 직접 주는 것보다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낫다는 말처럼, 학생들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Q : 마지막으로 저희 지식정보학부 학생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A :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것이 바로 미래를 위한 준비다'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반드시 해야 할 일들도 있겠지만,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의 행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말고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문대를 이끌어갈 인문대 정·부학생회장을 만나다

10최서경, 11정호빈

Q :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 안녕하세요!! 11대 4Season인문대학생회 정학생회장 영어영문학부 박아름, 부학생회장 박지수입니다.

Q :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인문대 학생회 이름이 4Season인데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나요?

A : 인문대학생회 이름인 4Season은 4개의 과가 4계절을 함께한다는 의미랑 4개의 과가 시즌(시기, 한창때)을 이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Q : 당선이 됐을 당시 많이 떨렸을 거 같은데 그때의 심정은 어땠나요?

A : 당선되었을 당시 기분은 처음 단선관위원장님이 투표율이 모자라서 재투표를 해야 된다고 하셔서 인문대학우분들에게 신뢰도 못 얻고 다시 도전해야한다는 생각에 참 우울했었습니다. 그런데 서프라이즈 파티를 위한 해프닝이었고 그때 기분은 당선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무척 행복했습니다.

Q : 인문대가 했던 사업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A :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5월에 했던 인문대 사진전이 있습니다. 작년에 많은 학우 분들이 참여하였고 또 같이 추억을 나눈다는 의미에서 우리 4Season과 같은 취지를 가진 행사라 생각하여 작년보다 큰 행사로 만들었는데 바람도 많이 불고 생각보다 적은 인원이 참가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Q : 처음 인문대 활동을 하다 보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언제가 가장 힘들었나요?

A : 그렇게 딱히 힘들었던 적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몇 개만 뽑자면 인문대 행사에 너무 저조한 참여율이나 말을 잘 듣지 않는 국원들? 그리고 국원 중에 지정과 주간 과대와 부과대가 같이 있다 보니 인문대행사와 학과행사가 겹칠 경우 그만큼 인문대 행사에 국원들이 빠져나가 힘들었습니다.

Q : 앞으로의 인문대 활동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 : 2학기 때 인문대 파티가 있는데, 인문대 자체가 학우들도 적고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서 4개의 학부가 다함께 친해지자는 의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대 전체 취업간담회를 통해서 자기가 속해있는 학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부와 관련된 취업정보도 얻을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장님과 학부장님의 모시고 다른 학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Q : 마지막으로 인문대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A : 앞에서 말했던 인문대 사진전처럼 너무 적은 인원만 참여 해주는 게 아닌 많은 인원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교에 들어와서 학점과 취업공부도 중요하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추억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많이 부족하겠지만 뽑아주신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업과 아르바이트 두 마리 토끼를 잡다

10황주하

Q :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 안녕하세요. 저는 지식정보학부 10학번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Q : 아르바이트 하는 곳과 한 달에 어느 정도 일하시나요?

A : 음료 전문점인 스무디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7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의 9개월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있는 현대백화점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끝나면 과실만 들렀다가 급하게 지하철을 타곤 합니다.

Q : 한 달에 받는 월급, 어떻게 쓰나요?

A : 한 달에 평균적으로 40만원이 조금 안되는 월급을 받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건 65만원이었고, 가장 적게 받은 건 27만 원 정도입니다. 저는 보통 월급을 받으면, 20만원을 용돈으로 해서 식비와 차비로 씁니다. 차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서 아무래도 차비가 가장 많이 부담됩니다. 그리고 남은 돈 중에 5만원 씩 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적금을 든 건 얼마 안돼서 지금은 쌓인 게 별로 없지만 차차 모아서 만기가 되면 해외로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큼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등록금에 보태기 위해 부모님에게 드리는 데 보통 10만 원 정도 드리고 남은 돈으로 문화생활비라고 해야 하나, 예를 들면 보고 싶던 뮤지컬을 보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놀거나 사고 싶어서 적어놨던걸 사거나 합니다. 아르바이트 특성 상 겨울에는 일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월급을 조금 받아서 금전적으로 가장 힘들니다.

Q : 학교를 다니면서 알바를 하기 때문에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A : 아무래도 학교를 마치고마자 바로 알바를 가야하는 것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하고 놀러가고 싶고, 더 얘기하고 여유롭게 집에 가고 싶은데 흑어나 알바시간에 늦을까봐 과실에 책만 두고 학교를 나오는 것! 아무래도 그게 제일 힘들다기보다는 답답하죠! 그리고 시험기간에 웬만하면 스케줄을 빼주시는 편인데, 어쩔 수 없이 못 빼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다음 날이 시험인데.....하는 압박감이 아무래도 있습니다. 처음엔 그랬는데 요즘엔 집에 있어도 안하는 걸아니까 차라리 알바를 하겠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힘든 건 알바 시간에 맞춰서 시간표를 짜려니까 듣고 싶은 수업을 못 들을 때도 있고, 오전 수업 위주로 짜게 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집이 먼 편인데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든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 체력적으로는 가끔 지치긴 하는데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알바를 그만뒀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Q : 아르바이트의 장점과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A : 일단,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사회생활 경험이 늘다보니 융통성이 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융통성이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나마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나서 이런 점에 대해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서비스업에서 일하다 보니 사람을 대하는 법도 배운 것 같고 뭐 그렇다고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 또래 친구, 언니, 오빠들과 일하면서 정말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너무 친해져서 일주일에 한번 씩 알바가 끝난 후 밤에 만나서 놀니다. 그게 아르바이트의 가장 장점이 아닌 가 싶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도 좋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난 친구들은 또 다르게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A : 혹시나 학교 다니면서 알바를 해도 될까? 하고 고민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꽤 괜찮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다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술정보관 그리고 책

11임호영, 11박준수

『그리면 200% 이루어지는 꿈의 설계도』



쓰루오카 히데코著, 지식여행(2010) / 학술정보관 4층 사회과학자료실

당신의 꿈을 위한 희망지침서

아직도 꿈이 없는가? 꿈이 있지만 어쩔 줄 몰라 주저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기를 권유해본다. 이 책은 꿈의 설계는 물론 꿈을 이루어 가는 데 필요한 많은 조언들을 통해, 뜬구름과 같은 꿈에 보다 쉽게 다가설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다.

원래는 옷가게 점원이었던 책의 저자는 자신이 꿈꾸던 전설의 호텔 CEO가 되기 까지 자신이 실행해온 독특한 꿈의 설계법을 독자들에게 소개해준다. 이렇게 단지 독

자에게 말로만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저자 본인이 직접 실천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독자들은 꿈을 보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꿈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꿈이 없어 해매는 사람에게는 꿈을 꿀 수 있는 용기를 주고, 꿈은 있지만 그 꿈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꿈에 대한 자신감을 주어 책을 읽은 모두가 꿈을 향한 한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책의 저자는 말한다. “꿈꾸는 것만이 실현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꿈을 실현 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이 책을 통해 꿈은 마냥 어렵고 이루기 힘들 거란 생각을 버리고, 꿈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보면 어떨까? 다시 한 번 마음속에서 이 말을 되새겨 보자, “꿈을 꾸자! 그 꿈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모두 꿈을 꾸어 보자!!”

『해피버스데이』



아오키 가즈오著, 밀리언하우스(2010) / 학술정보관 3층 어문학자료실

사랑의 의미를 되짚어 본다. ‘해피버스데이’

이 책은 일본 전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150만 부 이상이 판매된 아오키 가즈오의 베스트 셀러이다. 이 같은 명성답게 이 소설은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연극, 뮤지컬 등으로도 제작되어 일본 국민 전체에게 감동을 안겨주었으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이다.

어머니로부터 “너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라고 출생을 부정하는 말을 들은 열한 살의 소녀 아스카는 목소리를 잃게 된다. 그리고 그 후 오빠의 도움에 의해 요양차 할아버지 댁으로 가게 된다. 자연 속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신

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된 아스카는 드디어 목소리를 되찾게 되지만 주변의 환경은 바뀐 것이 없다. 하지만 돌아온 아스카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에 맞서고 가족들의 마음까지도 열어가게 된다.

이 책을 통해 평소에 의식하지 못하는 가족의 사랑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것이 어떨까?

『웰빙 파인더』



톰 래스, 짐 하터著, 위너스북(2011) / 학술정보관 5층 인문, 자연과학자료실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웰빙 파인더'

웰빙 파인더는 지난 10년간 3권의 세계적인 베스트 셀러를 펴낸 저자 “톰 래스”와 갤럽의 국제기업경영 및 웰빙 부문의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짐 하터” 박사가 함께 낸 도서이다.

웰빙 파인더는 지난 50년 동안 세계 150개국 15,000만 명을 대상으로 웰빙과 행복에 관한 테마를 조사한 미국갤럽연구소의 연구를 바탕으로 결과를 데이터화하여 사람들에게 행복으로 가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

요새 사람들은 웰빙이라는 것에 관심이 많지만 웰빙의 의미를 단순히 건강에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웰빙은 단순히 건강뿐만 아니라 큰 의미로 행복에 관련되어 있다. 이 책은 웰빙이라는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행복을 막연하게만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행복을 위한 계획을 실천하게 해줄 것이다.

행복하고 싶은가? 행복이란 말이 추상적인가? 그렇다면 이 책을 보라! 행복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히말라야, 바람을 닦다 바람을 담다』



김영실著, 서해문집(2010) / 학술정보관 5층 인문, 자연과학자료실

당신도 히말라야의 바람을 느껴보시겠어요?

히말라야산맥에 위치하고 있는 네팔은 빈국에 속하지만 행복지수만큼은 최상위그룹에 속하는 나라이다. 이러한 네팔사람들의 모습과 히말라야의 전경을 보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삭막하게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추구하는 명예, 경제력 같은 것들이 과연 행복이라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볼게 된다.

이 책은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잠시나마 평화로움과 안정감을 선사해줄 히말라야의 여러 자연들을 담은 사진집으로 작가가 한 달간 히말라야에 머물면서 기록한 주옥같은 100여 점의 사진들이 수록되어 있다. 네팔 길거리의 소소한 모습부터

히말라야의 웅장한 모습까지 많은 사진들이 책 속에 담겨져 있다.

네팔 사람들의 때 묻지 않은 순수한 모습과 히말라야의 웅장한 모습들을 작가 특유의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어 사진을 보고 있다면 마음이 한결 평화로워 진다. 때로는 적막하고 때로는 고요하며 때로는 평화로운 한장 한장들의 사진들에서 우리는 다양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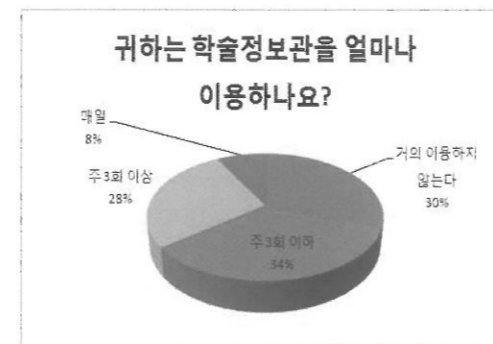
화려하고 멋진 사진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진들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평온함을 얻고 지친 일상에서 짧은 휴식을 찾을 수 있다. 이 책을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무심한 아름다움」이라고.. 표면의 모습이 아름답고 화려하지는 않아도, 왠지 모르게 우리 가슴 한 편에 다가와 아름답게 느껴지는 사진들이기 때문이다. 이 책을 감상한 모두가 이 책을 통해 잠시나마 지친 일상 속에서 벗어 날 수 있기를 바란다.

학술정보관의 현황 및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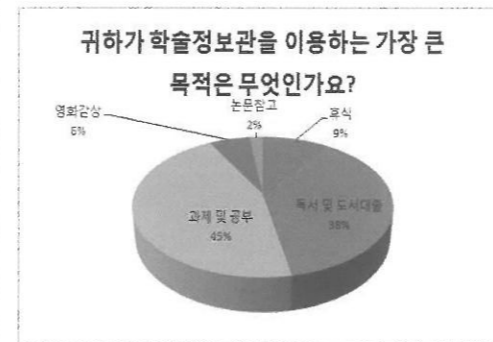
면적/건물구성	4300평 규모/지상6층
자료보유현황	단행본-50만권이상/650여 종의 정기간행물/2만 여종의 비도서 자료
대출	학부생7권(10일)/대학원생10권(30일)/교수30권(90일)/직원10권(60일)/조교10권(30일)
개관시간	학기중:월-금09:00-21:00 /방학중:월-금10:00-17:00 토-휴관
1973.03	한성여자대학 중앙도서관 개관
1996.05	국내 초유의 전자정보관 개관
2003.10	학술정보관으로 명칭 변경
2005.05	세계 도서관 정보대회(WLC) 공식 방문 도서관 선정
2007.02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제34대 회장교 역임
2010.11	2010년도 대학도서관 평가 전국 1위 선정("지역사회 연계 및 대외 협력 활성화" 분야)
2011.03	학술정보관 소장 장서 50만권 돌파

학술정보관의 이용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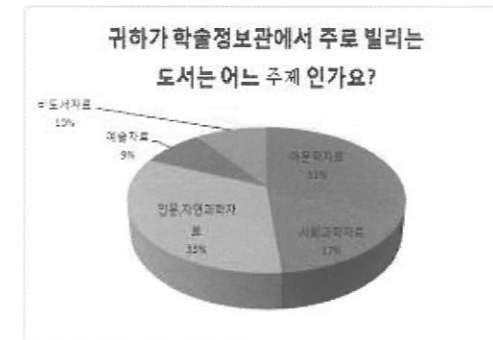
학술정보관의 이용실태에 대해 조사를 하기위해 저희는 한성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학술정보관 이용실태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학술정보관의 이용 빈도를 물어보는 질문에는 60명(30%)의 학생이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나머지 140명(70%)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학술정보관을 주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학술정보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학생들이 학술정보관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을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과제 및 공부를 위해 이용한다는 응답한 학생이 90명(4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독서 및 도서 대출 76명(38%), 휴식 18명(9%), 영화감상 12명(6%), 논문참고 4명(2%)이 뒤를 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학술정보관에서 학생들이 빌려가는 도서의 주제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인문, 자연과학자료라고 답한 학생이 66명(33%)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어문학자료라고 답한 학생이 62명(31%), 사회과학자료 34명(17%), 비도서자료 20명(10%), 예술자료 18명(9%)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객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야간학생들은 도서관을 원활히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학술정보관 운영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겠어요.

학생증을 잊어버리고 가져오지 못했을 때 대체수단을 만들어 주세요~

예약도서관의 반납이 원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과제 및 공부를 할 책상이 부족해요.

신간 도서의 빠른 업데이트!

컴퓨터 이용이 원활하지 않아요.

3층에도 정수기를 설치해주세요!

어린이도서는 도서신청이 불가인데 예술도서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동화책이 많습니다.

도서관내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6층 멀티미디어 정보실 바닥 소리가 너무 커서 DVD에 집중이 안 됩니다.

시험기간에 개관시간을 늘려주세요!!

대출 가능 권수를 늘려주세요.

도서관에 대출도서 외에 여유 도서를 두었으면 좋겠어요.

구두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는 바닥으로 교체해주세요.

대출 기간을 늘려주세요.

도서신청에 대한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홍보 부탁드립니다!

꿈의 그 곳, 국립중앙도서관을 다녀오다

10황주하, 10유달리, 11남궁은, 11안미현

Dibrary

1. Dibrary의 소장 자료

□온라인 자료

- 원문 :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축한 학술정보적 가치가 있는 원문을 제공, 관내 및 협약도서관 이용가능.
- E-콘텐츠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입한 전자책, 동영상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관내에서 이용가능.
- 웹DB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축한 국내외 학술적 가치가 있는 웹DB에 대한 정보 제공
- 오아시스 : 인터넷상에 가치 있는 웹사이트를 웹로봇 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보존하고 이용 동의를 받은 자료에 대하여 이용서비스 제공, 이용 제한 없음.

□국가자료종합목록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국 공공도서관의 소장 자료에 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이며 도서관간 정보 공유 및 상호협력 네트워크.

□한국고전적종합목록

한국 고전적에 대한 목록, 해제, 원문 등을 인터넷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전국의 고전적 소장처를 연계하여 목록 데이터 접근 및 표준화된 목록DB 구축을 용이하게 서비스하기 위하여 개발된 프로그램.

2. 정보 광장(IC : Information Commons)

실제 디지털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물리적인 공간인 정보 광장은 모든 방문자에게 개방된 공간으로 이용자가 그 개인의 필요에 따라 기기 및 자료를 이용하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보 광장의 지하 3층은 디지털도서관의 메인 로비로서 별도의 이용절차 없이 전 연령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며 디지털 문화를 체험하고 즐기는 문화공간이다. 지하 2층(16세 이상 이용 가능)은 디지털 정보의 열람, 생성 등 디지털도서관의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며, 디지털자료의 열람과 이를 활용한 미디어 편집, 문서작성, 연구조사 등 다양한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디지털도서관의 핵심이용 공간으로 디지털열람실과 미디어센터로 구분할 수 있다.

B1층	본관과의 내부 연결통로, '디지로그' 공간 조성
모션트래킹 솔루션	이용자의 동선에 따라 반응하는 콘텐츠 제공
B2층	NDL 이용자 열람 서비스 집중 공간
디지털열람실	NDL에서 서비스하는 디지털자료의 열람·편집 공간
세미나실	세미나, 회의공간(첨단 미팅 솔루션 제공)
미디어자료이용실	멀티미디어자료 이용 공간
디지털편집실	영상·이미지 콘텐츠 편집공간으로 전문영상편집프로그램 제공
영상/음향/UCC 스튜디오	이용자가 직접 영상·음향·UCC 콘텐츠 생성, 편집
복합상영관	터치스크린을 통한 VOD서비스 및 대여한 DVD 감상
노트북이용실	이용자 개인노트북 이용공간
B3층	상징조형물, 첨단영상매체를 통한 NDL 모뉴먼트 효과 극대화
로비	대형 다면영상 화면을 통한 미디어 아트 및 상징조형물 전시
전시실	디지털아트 작품 상성전시와 기획전시
대회의실	컨퍼런스, 세미나, 교육 등 행사 지원

국립중앙도서관의 2011년 5대 계획

1. 도서관 3대 핵심역량(장서, 사서, 공간) 강화

- ▶ 장서개발 정책 획기적 개선 및 수집을 강화
 - 국립중앙도서관 장서확충 중장기 전략 수립
 - '책다모아' 사업을 통한 국가문헌 확충 및 소외지역 도서관 지원
 - 국내외 소재 한국 고문헌 및 고지도 발굴 수집 강화 등
-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고품질 디지털콘텐츠 확충
- ▶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사서 역량 확보
 - 수요자별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 E-learning 확대를 통한 사서의 교육기회 확대
 - 직원 역량강화 및 능력개발을 위한 강좌 및 프로그램 개발·제공
- 하이브리드 도서관 구현을 위한 융합형 공간 및 조직 개편
- 행정중심복합도시 분관 개관 준비팀 운영
-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융합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및 기능 개편

2. 국민에게 다가가는 도서관서비스 구현

- ▶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확대 및 활성화
 - 디지털도서관 원문DB 안방서비스 구현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 스마트 폰 서비스 확대
- ▶ 도서관 선진화 및 국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 강화
 - 국가서지정보 신속 제공 및 검색기능 강화
 - 상호대차 서비스 확산 및 통합도서 서비스 기능 개선

3. 도서관을 통한 국민 문화향수 확대

- ▶ 국민 독서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모델 제시
 - 책과 연관된 수준 높은 독서 문화강좌 제공
 -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
- ▶ 국민 모두의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

4. 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강화

- ▶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독서환경 개선
 - 지역생활권별 이용 편의제공을 위한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지원 확대
 - 지식정보취약계층 디지털자료 이용료 무상지원 확대
 - 소외계층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독서활동 지원
- ▶ 다문화 가정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확대
 - 다문화 가정을 위한 독서콘텐츠 개발·보급

5. 세계 도서관계에서 한국 역할 증대

- ▶ 세계 주요 국립도서관과의 전략적 교류협력 증진
- ▶ 외국 주요도서관 한국자료실 설치 및 한국학자료 지원
- ▶ 문헌정보, 메타데이터 분야 국제 표준화 추진

국립중앙도서관에 취업하려면??

Q : 국립중앙도서관의 채용에 관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올해 2011년 7월에 사서를 채용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원래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9급과 7급 공무원을 채용했었는데 모든 사서직을 7급 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계획은 사서들이 9급에서 7급으로 올라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 5년이란 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처음부터 더 나은 조건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Q :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가 되기 위해선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A : 9급 응시 자격은 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도서관법 제 2조에 규정된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등에서의 근무경력 3년 이상 자(계약직 포함) 또는 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토익 600점, 토플 500점, 텡스 520점 (중 1개) 이상 성적 취득자이고, 7급 응시 자격은 2급 정사서 이상 자격소지자+도서관법 제 2조에 규정된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등에서의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계약직 포함)입니다.

Q : 국립중앙도서관의 채용 시험에 대해 알려주세요.

A :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는 공무원이므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가 되려면 공무원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자료조직과 정보봉사등의 사서직 과목과 더불어 국가직 공무원 공통과목 또한 같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시험 방법은 1,2차가 선택형 필기시험이고, 3차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되는 면접시험입니다.

Q :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에 대해 알려주세요.

A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의 자격증들이 가산점이 포함됩니다. 현재는 자격증의 가산점 비율이 0.5%~1%로 감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점의 비율이 너무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서 채용시험에서의 경쟁률은 아주 높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을 미리 따두어 점수를 조금이라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산점이 부여되는 자격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자격증만 인정되기 때문에 가산비율이 가장 높은 자격증 하나만 공부하여 취득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아무런 가산점도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Q : 채용시험을 준비할 때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A : 취업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선배님들이 추천해주신 방법은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취업에 관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과목 뿐 아니라 자격증에 관한 공부도 필요하므로 서로 자신의 강점을 살려 도와 줄 수 있어 win-win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터디그룹은 혼자 계획적으로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 다른 대학에서는 몇 명의 학생들과 교수님이 함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각 기관마다 시험을 보는 과목이나 유형, 필요한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조사해보고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또한 복습을 하고 안하고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목표로 하고 있는 기관의 시험과 관련된 과목을 중심으로 시간표를 짜서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관리부 여위숙 부장님
정책자료과 이윤경(85학번), 국가서지정보센터추진단 노은희(88학번), 사서교육문화과 김승정(90학번)

지정 선후배가 함께 한 취업간담회

▶ 대학도서관

먼저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다. 주제전문사서란 특정 주제 분야의 도서관 활동을 하기 위하여 조직되는 도서관에 임명된 직원이다. 주로 최신 정보를 요구하게 되는 학문 분야의 정보 검색과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사서를 말하는 것이다. 주제전문사서에게는 참고봉사와 자료선정이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두 업무들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요구된다. 필수 조건으로는 ALA이 인증한 기관에서 수여한 MLS/MLIS 학위와 대학도서관 업무 경험, 주제분야 관련 학위(학사)가 있다. 그리고 비록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지고 있으면 유리할 수 있는 조건들로는 대학도서관 업무 경험과 주제분야 관련 학위(석사), 주제분야와 관련된 도서관 업무 경험 등이 있다.

또한 학술지를 많이 접함으로써 최신의 정보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 그리고 '대학내일'이라는 잡지에 실린 인터뷰를 통해 강연을 하셨는데 여러 대학 도서관에 입사한 사서들의 인터뷰였다. 내용은 조금씩 달랐지만 대부분 입사 전의 경력이나 경험을 중요시하고, 자신의 품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내용들은 공통되었다. 또 스펙 쌓기에 지나치게 목 말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취업을 위한 기본 요건은 미리 생각하고 갖춰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다음으로는 인사 담당자와 취업자의 관점에서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설명해주셨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스펙보다는 경력을 소유한 신입사원을 선호하며, 면접을 볼 때 자신감을 중요한 요인으로 여긴다고 말씀하셨다. 취업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 곳에 입사해야 하는 이유를 뚜렷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며 인턴십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이는 위에 언급한 입사 전 경력이나 경험을 중시한다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직에서의 사서직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졸업생과 지원자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사서 자리는 부족한 현실에서 어쩌면 우회 공략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다.

▶ 전문도서관

국회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를 하려면 공무원 사서직 9급 공채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사서직은 그 수요가 크지 않아, 정기적인 채용을 하지는 않는다. 최근에는 2010년에 사서직 9급 공채시험이 있었는데, 6명(사서직 장애 1명의 지원미달로 일반직 6명 선발)선발에 717명의 인원이 응시를 해 102.4: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사서직 9급 공채시험의 시험과목으로는 국어, 영어, 자료조직개론, 정보학개론, 헌법이 있으며 이 중 정보학개론, 헌법과목은 특별히 국회도서관 사서를 채용할 시에 응시해야 할 과목이다. 또한 각 과목은 각각 5지선다 20문항으로 100분간 치러진다.

2010년 사서직 9급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국회도서관에서 근무 중인 한성대학교 출신 서진희 선생님은 1월~3월까지는 인터넷 강의(암기보다는 이해 우선, 부족한 자료 보충, 스터디와 병행)를 4~6월에는 기본서 정독 및 암기, 문제풀이, 각종 시험을 볼 것을, 9~10월달에 되서는 각 과목 요약, 문제풀이, 헌법 이론&문제풀이에 집중할 것을 추천해주셨다. 또한 국회도서관 사서직 채용시험이 정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도서관 시험만이 아닌 다른 사서직 채용정보에도 관심을 갖기를 추천해주셨다.

헌법재판소도서관은 아직까지 정기적인 채용시험을 보고 있지는 않다. 다만 빈자리가 생겼을 때에만 사서직공무원합격자중 서류, 면접을 통해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도서관은 정부부처의 지방이전과 함께 훗날 헌법재판소를 떠나 독립된 단독도서관으로 탈바꿈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만일 헌법재판소도서관이 단독도서관으로 독립해나간다면 그 규모 또한 커지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서관의 채용 폭이 보다 커지게 될 것이다.

▶ 공공도서관

사서직 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뉜다. 국가직의 근무처는 국립중앙도서관, 외교부, 통일부 등이 있고 지방직의 근무처는 서울시, 경기도, 지방교육청 등이 있다. 채용은 국가직보다 지방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울시보다 경기도에서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사서 9급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 준사서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거주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당해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 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은 국어, 영어, 한국사와 사서직 과목인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을 합쳐 총 다섯 과목이 있다. 제 1/2차 시험은 병합되어 실시되며 선택형 필기시험이고 매 과목당 4지 택1형, 문제는 20문항씩 주어진다. 그리고 제 3차 시험은 서류전형으로 응시자격과 가산점 등 서면심사가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제 4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진다.

제 3차 시험에는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와 공통적용 가산점이 있다.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는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그리고 공통적용 가산점은 1개의 자격증만 인정되며 과목별 만점의 0.5%~1%가 부여된다.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될 수 있다. 자격증은 직급과 자격증의 종류에 따라 가산점이 다르게 들어간다. 통신/정보처리분야 8/9급에서는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가 1%의 가산점이 주어지고 정보기기 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는 0.5%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통신/정보처리분야 7급에서는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가 1%의 가산점이 주어지고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는 0.5%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취업을 한 후에 사서직 공무원에 도전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학교를 다니면서 학력과 상관없이 응시할 수 있는 행정직에 응시하여 경험을 쌓는 것도 나중에 사서직 공무원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다.

▶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경우 학교의 도서관을 혼자서 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도움을 받는다. 때문에 학부모, 학생들과의 소통이 사서교사로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우선 4년제 대학교 졸업 후 교직 이수를 통해 교사 자격증을 획득한다. 대학교에서 교직 이수를 못 했을 시에는 교직 이수를 위해 대학원을 나오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임용시험에 응시한다. 사서교사 임용시험은 초등학교 교사가 가능한 초등, 중, 고등학교 교사가 가능한 중등을 따로 뽑지만 둘 다 모두 중등 임용시험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시험 날짜와 문제가 모두 같다는 것을 뜻한다.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과 논술로 치러진다. 범위는 전공과목(4년 교육과정) 전부와 교육학에서 골고루 출제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필요로 한다. 기출문제를 연도별, 과목별로 나누어 풀어보며 경향을 예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전국의 사서교사는 700명 정도이다. 전국의 학교 수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수이다. 아직도 90% 이상의 학교에서 사서를 계약직으로 쓰거나, 일반교사와 기타 학교직원이 사서를 분담하고 있다. 사서교사에 대한 필요 인력 정원이 갈수록 줄고 있는 것도 현실이지만 전문 사서교사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있다. 교무회의의 참여, 학생이나 학부모의 도우미활동을 조직하고 지원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 정규직에서 나올 수 있는 소신이나 전문성 등은 사서교사만이 할 수 있는 일로써 그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

취업 창업 지원팀 방문기 : 우승식 주임님과 함께

10김정훈, 10김푸름, 10이도경

Q : 취업지원팀이란 어떤 곳 인가요?

A : 취업지원팀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위한 상담을 해주고, 그에 알맞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간혹 몇몇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위한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지원팀은 한성대학교 재학생 모두에게 열려있는 곳입니다.

Q : 취업지원팀은 학생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나요?

A : 크게 JOB CAFE 운영과, 프로그램 계획 및 제공, 상담을 하고 있으며, 우리학교의 취업에 대한 통계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곳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취업으로 고민하는 학생들과의 상담을 통해 학생들에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형성시켜줍니다. 상담은 주로 전문 상담가가 배치되어 있는 JOB CAFE와 취업지원관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통계자료도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 선배님들의 취업 현황은 어떠한지와 같은 정보도 얻을 수 있어요.

Q : 그럼 주임님은 그 중에 어떤 일을 담당하세요? 모든 업무를 보시나요?

A : 저는 크게 해외 인턴쉽, 취업통계, 창업,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관련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6월부터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함께 진행 하고 있습니다.

Q : 구체적으로 취업 지원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 프로그램들을 우리 한성대학교 학생들에게 소개해주세요.

A : 프로그램별로 나눠보면, 취업지원프로그램, 해외 인턴쉽 프로그램, 국내 인턴쉽 프로그램, 교육 훈련금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Q : 취업지원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데 알고 싶은 학생들도 있고, 이 글을 보고 관심이 생겨서 더 알아보고 싶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이러한 취업관련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A : 취업프로그램이나 관련 공지사항은 학교홈페이지와 취업정보센터에 공지해요. 그런데 학교홈페이지 메인공지는 겉으로 보여 지는 글이 최대 5개이기 때문에 최근 글이 5개가 넘어가면 보이지 않아요. 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 오른쪽 위에 작게 표시되어있는 'More'를 누르면 볼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 학생들이 공지사항이나 관련 글들을 잘 보지 않아 글을 확인하고, 참여하는데 많이 저조해요. 그래서 특별히 홈페이지 오른쪽에 '취업정보센터 취업공지'라고 따로 배너를 만들어뒀어요.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각종 취업정보, 공지를 확인하기 바라요. 또한 단과대별로도 취업정보센터를 운영 중이니까 효율적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했으면 좋겠네요. 지식정보학부니까 인문대학 취업정보센터에 들어가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Q : 마지막으로 저희 한성대학교 학생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해주세요.

A : 취업·창업지원팀은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팀이 아니라 한성대학교 학생 모두를 위한 팀이므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이 방문해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취업지원팀에 관심을 가졌으면 싶어요. 여러분들을 위해 많이 마련되어 있는 유용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본인이 관심 있고, 원하는 정보나 필요로 하는 상담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우리 팀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취업지원팀은 항상 우리 학생들 모두에게 열려있으니까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찾아와주세요.

☺ 참고해보세요 ☺

● 취업 지원프로그램

① 집중 취업교육

-한성취업박람회: 종합적인 기업정보를 수집하고, 구직 기술능력향상, 공통된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된 취업설명회(Job Fair)로 매년 2학기 9월 혹은 10월에 실시.

이곳에서는 기업 채용관, 취업 컨설팅관, 이벤트관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정보제공과 더불어 입사지원서 클리닉, 취업이미지 컨설팅, 이력서용 무료 증명사진 촬영 등의 이벤트를 진행.

- 집중면접캠프: '하계방학 중 합숙을 통한 직업의식 고취' 라는 취지로 운영되는 이 캠프는 직종별 인사담당자와의 모의 면접을 통해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면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줌. 하계 방학 중 1박 2일로, 직종별 3회 진행.

② 취업영어 교육 프로그램

-매월 2회(주/야로 구분하여) 모의 TOIEC시험을 실시

-취업영어강좌(TOIEC 시험대비, Business English등) 수시운영

③ 365 캠퍼스 프로그램

자기개발 활성화와 더불어 현장 경험자와 이론 전문가를 접목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교육과정으로 취업 시 현장실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는 프로그램.

하계/동계 방학 중 운영.

④ 경력개발실 운영

우촌관 3층에서 상시 운영되는 곳으로, 자유롭고 편안한 공간에서 자신의 흥미에 맞는 직업을 찾아보고, 취업준비 활동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공적인 사회진출과 미래 경력설계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곳.

1:1 진로 및 취업상담, 직업적성관련 심리검사,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그룹 활동, 모의면접 클리닉, 나에게 맞는 직업 찾기 카드 활동이 이루어짐.

● 해외 인턴쉽 프로그램

① ICCEUSA 프로그램

ICCEUSA 해외 인턴쉽은 한성대학교와 ICCEUSA간 산학협력협약을 맺고 진행하는 인턴쉽으로 연수기간은 1년. 미국회사에서 인턴쉽 활동을 하게 되며 인턴쉽 6개월 경과 후 교내 학점인정을 통해 학사 학위를 받고, 인턴쉽 1년 후 인턴쉽 기간 동안의 평가 실적과 여건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한 프로그램.

7학기를 이수하고 8학기를 등록한자에 한해서 연2회 학기 중에 모집. 직종은 다양하며 현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인턴십의 경우 최대 15학점 (전선9학점, 일선6학점) 이수가능하다. PASS/FAIL로 학점을 부여하며 평점평균반영은 없음.

② KOTRA 프로그램

KOTRA에서 진행하는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세계 각국의 KBC(Korea Business Center)에서 무역관련 업무를 보조하는 프로그램. 연수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6개월이며, 6학기를 이수하고 7학기에 등록한자에 한해서 KOTRA의 업무일정에 따라 모집한다.

● 국내 인턴십 프로그램

최근 기업은 인턴십을 통해 업무능력이 검증된 '실무형 인재'를 선발하는 추세이므로 학생들은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한 실무능력강화, 연수수당 및 학점 취득이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프로그램명	운영주체	연수시기	연수기간	학점인정	인정과목명	성적처리
산학협동교육	본교와 협약된 민관기구	학기 중/ 방학 중	15주~1년	최대 15학점	산학협동교육 또는 일반선택	PASS 혹은 Non-PASS
대학생 중소기업체협활동	중소 기업체	방학 중	3~4주	3학점	직장체험 프로그램 I/II	
청년직장 체험프로그램	노동부	학기 중/ 방학 중	1~6개월	15주미만 : 1~3학점 15주 이상 : 최대15학점		

→산학협동교육 및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으로 15주 이상 활동하고,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인턴십의 경우에는 최대 15학점(전선9학점, 일선 6학점)이수 가능함.

● 교육훈련 지원금

교육훈련 지원금 제도는 취업목적의 교육훈련지원을 원칙으로 학생들에게 취업 촉진을 돕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선 신청, 후 지원 원칙으로 이루어지며 재학생 당 100만원 한도로 각 교육 훈련비의 50%를 지원해 줌. 단, 각 교육 훈련과정의 출석률이 80%가 되어야하며 교재비 및 기타 비용은 지원금에서 제외된다.

1학년은 진로, 심리, 지도교수 상담 수행 후 1학년 2학기부터 신청가능하며 1, 2학년 휴학생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편입생의 경우에는 100만원이 아닌 50만원으로 지원금 한도가 있다.

<1인당 지원액>



차세대 리더를 꿈꾸는 당신, 카네기로 오라

10강영철, 10황주하

카네기 글로벌 리더십 코스란 데일 카네기(Dale Carnegie)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카네기 글로벌 리더십 코스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취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와 도전하는 자신감 개발
- ② 사람의 마음을 얻고 열렬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인간관계 스킬 증진
- ③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 개발
- ④ 최선을 다하는 분위기를 창출하는 리더십 능력 증진
- 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 능력 증진



카네기 글로벌 리더십 코스의 훈련 이익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경력 개발 측면에서의 이익은 취업 시 기업에 제출할 수 있는 국제 인증 수료증을 받을 수 있고, 취업, 면접 대비 1:1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카네기 연구소에 인턴사원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 임원 리프레쉬 정기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성 개발 측면에서의 이익은 무엇보다 자신감과 열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호적인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능력,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영향력 있는 셀프 리더십 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유익한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이익입니다.

카네기 리더십 프로그램을 신청하신 선배님께 하신 이유를 여쭙보았더니 4학년에 때 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을 듣고 한번 해보기로 결심했다고 하셨습니다. 평소 자신감이 부족해서 고민하셨던 선배님께는 어쩌면 좋은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청 하셨는데 처음 2~3 주는 가기 싫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막상 가보니 소심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의외로 활발한 사람도 많아서 조금은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조용하고 소심한 사람, 대범하고 활발한 사람에 관계없이 하려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선배님께서서는 2010년 2학기에 신청하셨는데 가보니 아는 사람이 꽤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으면 더 좋지 않겠냐는 말에 오히려 모르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덜 민망하다고 하셨습니다. 카네기 리더십 프로그램을 하면서 얻은 것은 무슨 일이든 일단 한번 해보자는 자신감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비록 매 주가 어땠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체 과정들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면서 잃은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별로 없지만 그 당시에 반드시 잘해야 된다는 중압감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프로그램을 다 마친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보니 그것은 당연한 과정일 뿐, 큰 스트레스가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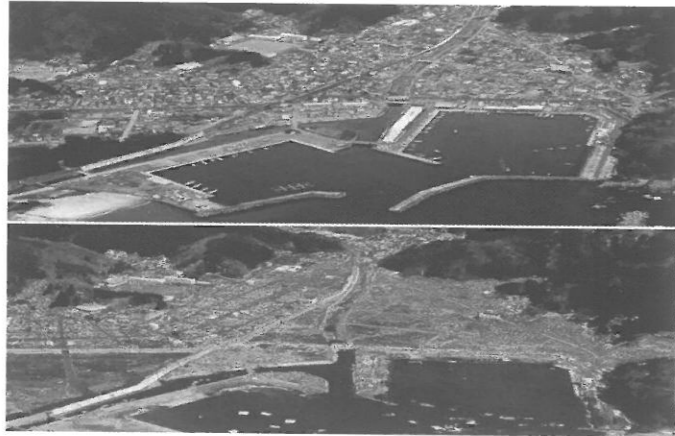
만약 카네기 리더십 프로그램을 다시 할 수 있다면 또 하시겠냐는 질문에는 한번 경험해 본 만큼 다시 할 땐 더 잘할 수 있으실 것 같고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한성대학교 카네기 리더십 프로그램은 지금 인문대학생만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단적으로 안 좋은 소문만 듣고 잘 신청하지 않는다고 아쉬워 하셨습니다. 비록 취업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면접을 볼 때의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등의 장점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적만 가지고 신청하기 보다는 자기개발을 목적으로 신청하면 더욱 보람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도움을 주신 분 : 지식정보학부 06학번 김혜원 선배님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원전폭발...일본 대지진의 현장

11정호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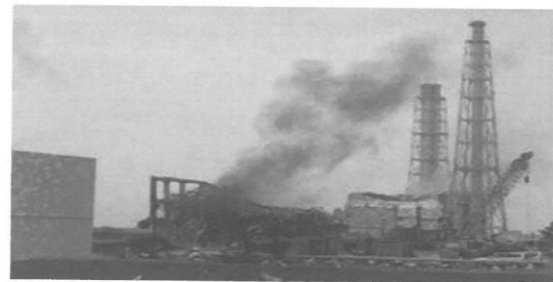


(쓰나미 전·후의 이와테현 사진)

2011년 3월 11일, 일본에 진도 8.9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지진이 있었던 일본이지만 이번 지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최악의 지진이었다. 규모로 보자면 2월에 발생했던 진도6.5의 뉴질랜드 지진의 800~1000배의 위력이라고 한다. 최초 진원지인 도호쿠 지방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은 혼자 오지 않고 거대한 쓰나미와 함께 왔는데, 그 결과는 참혹했다. 쓰나미에 쓸려 흔적도 알아볼 수 없도록 파괴된 가옥, 차량 그리고 실종된 수많은 사람들……. 센다이공항이 침수로 폐쇄가 되고 도쿄 디즈니랜드가 침수되고 도쿄지하철의 일부가 운행이 중단되는 등 일본 전역에 대혼란을 가져왔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일본인들이 보여준 질서 의식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차례를 지키며 구호품을 받아가고 생필품도 자기가 필요한 양만큼만 사가는 등 어떻게 보면 무서울 수도 있는 시민의식을 보여주었다. 정작 일본인들을 공포에 떨게 한 것은 지진과 쓰나미의 공포가 아닌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이었다.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의 폭발로 방사능이 유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원폭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었던 일본인들에게 원자력 발전소 폭발은 커다란 공포로 다가온 것이다. 그전까지도 침착해 보였던 일본인들의 눈에 공포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원전사고가 일어나고 며칠이 지나자 일본인들의 침착성도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재난 범위 밖에서도 피난을 가고 식료품을 사재기 하는 등 그전까지는 침착했던 그들에게도 원전폭발은 큰 공포로 다가오고 있던 것이었다.

수소폭발로 인해 후쿠시마원전의 건물 외벽과 지붕이 무너지고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누출되면서 상황은 급박해지기 시작했다. 연료봉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바닷물을 투입해서 온도를 낮추고 피폭의 위험을 안고서도 남아서 원전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후쿠시마원전 직원들 그리고 정년을 6개월 남겨두고도 지원해서 달려오는 사람들까지. 그러나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 되었다. 1호기 외에도 3호기에서도 이상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3호기에 문제가 생긴 이틀 뒤인 15일에는 2.4호기에도 문제가 생겼다. 특히 2호기는 격납용기에 직접적인 피해로 방사능 물질이 바람을 타고 각지로 퍼지게 되었다.



(폭발로 무너진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조금씩 진전되는 듯 했으나 뒤늦게 일본 언론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이 지진발생 16시간 만에 멜트다운이 진행됐다고 한다. 멜트다운이 진행되면서 격납용기가 손상돼 수많은 양의 방사능 오염수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차이나신드롬이라는 사태까지 갈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타난 귀 없는 토끼는 일본인들의 방사능에 대한 공포를 더욱 크게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발생한 간토지방의 진도 5.5규모의 지진이나 이바라키 현과 지바 현의 진도4의 지진 도쿄 중심부에서 일어난 진도의 지진 등 아직까지 많은 여진이 발생하고 있다.

Q : 우리나라는 방사능에 안전한가?

A : 처음 기상청에서는 방사능낙진은 한반도까지는 절대 올 수 없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3월 23일 강원도에서 극미량의 방사성 제논이 검출되었는데 정부는 이를 숨기고 있다가 5일 후인 28일이 되어서야 발표를 했다. 발표를 했을 당시에도 극미량이라서 인체에 영향은 없다고 했으나 문제는 제논의 이동경로와 발표시점이다. 제논의 이동경로를 역추적한 결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의 극히 일부가 캄차카 반도로 이동한 뒤 북극 지방을 돌아 시베리아를 거쳐 남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발표가 있고난 뒤부터는 전국의 방사선량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방사성 물질의 예상 이동경로)

Q : 우리나라 원전의 상황은?

A : 우리나라 원전 총21개(울진, 월성, 고리, 영광)가 있다. 안정성에 관해서는 5가지 정도가 있는데 내진 설계에 있어서 원전 부지를 정하면 반경 300km의 과거의 지진 기록, 그 지역의 지질의 특성에 맞추어서 발생 가능한 최대치를 삼아서 거기에 여유를 보태서 규모 6.5의 내진 설계를 했으며. 진도6.5라도 직선 지하로 10km로 해서 지진이 발생해도 안전하게끔 내진설계를 해 놔다. 그 다음으로 쓰나미 설비도 해놨는데, 쓰나미 설비는 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진 단층의 규모, 진원지와 거리의 거리를 감안해서 쓰나미 설비를 했다. 세 번째로는 원전마가 지진감시체계를 구축해놔 경보가 오면 원전이 자동으로 멈추게 되어다. 또한 격납건물 안에 전기발생기가 따로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원전폭발의 주원인이었던 수소제어장치도 만들어 놔다. 마지막으로는 민간 합동으로 조사를 하면서 1차적으로 나온 것이 비상사태 시 긴급 전원공급 장비를 이동식으로 대체해놓자고 하는 것까지 생각해놓고 있다. 일본에서 쓰나미로 인해 원자로를 냉각시키는 발전기가 고장이나 사고 난 것을 교훈삼아 대비하는 것이다.

Q : 기사에 나온 차이나 신드롬이란?

A : 차이나 신드롬은 옛날에 미국에서 만든 영화의 제목인데, 원자로 노심 용융(멜트다운)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말한다. 원자로의 냉각이 원활하지 않아서 원자로 노심의 온도가 2000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고 원자로 용기의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최악의 경우 지하를 뚫고 내려간 핵연료가 지하수와 만나서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고 그 폭발로 인해 치솟은 핵물질이 대기 중 제트기류에 섞여 전 세계적인 대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다.

Q : 일본이 지진성금을 거부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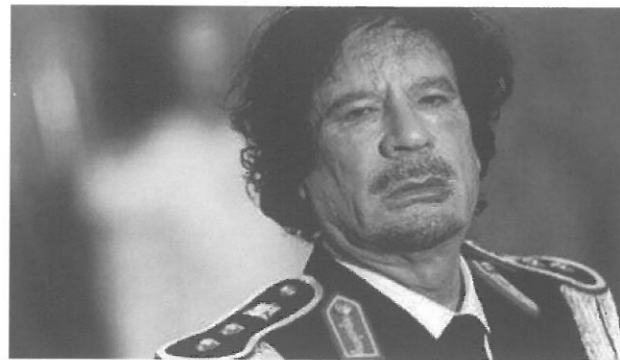
A : 일본 보수파의 자민당 소속의 호소다 히로유키 전 관방장관이 독도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이 독도를 실효 지배하는데 강화하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며 일본지진에 따른 우리나라의 지원을 거부한다고 했다.

지금 일본은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원전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일자리, 살 곳을 잃고 떠돌고 있다. 원전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는 주변 20km까지 완전봉쇄를 그 범위 밖에서도 방사능위험이 있는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 들어온 채소나 식품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어 식품 문제까지 더해졌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원전사고는 단순 일본뿐만이 아니라 주위 다른 국가들도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번에 일어난 지진은 단순히 일본에서만 해결하는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도와서 사태를 진정시켜야 되는 문제가 되었다.

자유를 위해. 리비아의 어제와 오늘

11박대헌

지난 2월에 발생 한 리비아 내에서의 민주화운동으로 시작하여 지금에 와서는 다국적군의 개입까지 이루어지며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어있는 리비아 사태의 원인과 과정에 대해 적어본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카다피(그림)

리비아 사태의 배경으로는 우선 카다피 부족의 장기집권을 들 수 있다. 리비아는 500여개 부족이 모여 만들어진 나라인데, 와르팔라/주와야/카다파 의 세 부족이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한다. 그 중 카다파 부족의 리더인 카다피는 왕정에 대항하여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를 통해 1969년 '리비아 아랍 공화국' 을 세우며 리비아의 지도자로 등극하여 지금까지 42년 동안 리비아를 통치해 왔다. 이만큼의 장기집권에도 불구하고 카다피가 견재할 수 있었던 데에는 철저한 정적 제거와 여론 조작 등이 있어왔겠지만, 시대가 변하고 국민들의 눈이 떠짐에 따라 점차

카다피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불만은 실업률, 빈부격차의 증가와 카다피 아들들의 부정부패 등의 문제 때문이었다. 이러한 시기에 튀니지를 시작으로 각 아랍국가의 장기 집권 체제들이 서서히 무너져가자, 리비아도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리비아 역시 튀니지,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민주화 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민주화 운동의 의미는 퇴색되었다. 와르팔라/주와야 부족이 카다피 부족에 대항하였고, 여기에 소수부족들까지 난입하면서 상황은 부족 간의 정권다툼으로 바뀌어 갔다. 하지만 반대세력의 하야 요구에도 카다피는 방승을 통해 확실하게 이를 거부선언, 심지어 반 카다피 세력을 공격하였다. 여기에 반군 역시 무력으로 대응하였다. 이후로 이를 리비아 내전이라고 부르며, 상황은 반군과 정부군의 확실한 전쟁 양상으로 치달게 되었다. 40여 년간의 장기집권은 카다파 부족에게 해가 될 만한 군사력을 약화시키는데도 한 몫 했다. 초기에는 수도 트리폴리와 몇 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이 반군에게 점령되었지만, 정부군의 반격에 반군 역시 주춤할 수 밖에 없었다.



정부군도 초기에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까 우려되어 눈치만 보며 소극적인 대응을 했지만, 일본 대지진 등으로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려 있는 틈을 타 반군에 대대적인 반격을 가하였다. 반군이 대량학살 당하며 정부군이 거의 승리를 잡아갈 무렵, 다국적군(연합군)의 개입이 시작되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월 17일 리비아에 대한 유엔의 군사적 개입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다.

프랑스의 첫 공습을 시작으로 영국과 미국도 공격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반군까지 진격해 정부군은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하지만 카다피 관저 근처까지 피해가 미치지 카다피의 지지자들은 인간방패로 나서 다국적군이 노리는 주요 시설들 근처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취재 금지 구역에도 외신을 불러들여 자신들의 의지를 표명했으며, 총을 들고 공중에 쏘는 등 다국적군에 확실한 항전 의사를 표시했다. 민간인들의 인간방패 전략에 이어 정부군은 연합군의 표적이 되는 탱크, 장갑차 등을 버리고 반군과 비슷한 차량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군복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어 연합군이 적을 식별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했다. 연합군은 이로 인해 공습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 사이 정부군은 반군에게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다. 반군이 패퇴를 반복하는 가운데, 미국이 작전권한을 유럽연합 나토(NATO)에게 이양하면서 사실상 사태에서 발을 빼게 된다.

리비아 상황 4가지 시나리오

- 1 리비아 정부군 반란 또는 붕괴에 따른 반카다피군 승리**
 *서방에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
 *리비아군 핵심 전력을 카다피 아들이 장악하고 있어 반란 예측 어려움
- 2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카다피를 권좌에서 축출**
 *서방 외교관들이 선호하는 시나리오
 *경제제재, 무기금수, 외교고립 등의 노력에 시간이 들어감
- 3 리비아가 둘로 갈라져 대처하는 시나리오**
 *서방에는 골치 아픈 시나리오
 *동부 지역을 언제까지 보호해야 할지, 자원금은 얼마나 들어갈지 답이 안 보임
- 4 카다피 진영, 시간을 끌다가 서방의 관심이 멀어졌을 때 반카다피군 진압**
 *서방에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에게 걸과적으로 시간을 벌어들인 전례를 답습할 가능성이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미국 대통령 7명을 상대해본 카다피는 권좌를 지키는 방법을 잘 안다는 것

자료: 월스트리트저널

서방의 지원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반군은 주요 도시에서 정부군이 철수한다는 조건으로 결국 유엔의 정전 요구안을 수용하게 된다. 정부군 역시 전선에선 유리한 상황을 가지고 있었지만, 카다피를 지지하던 정부의 주요 인물들이 망명을 계속하자 한 보 물러섰다. 이와 같은 정전 상황에서 그리스와 터키가 외교적으로 해결하자며 중재에 나섰다, 정부가 카다피의 퇴진을 양보하는 대신 그의 아들이 권력을 잇겠다 하여 반군과 유럽 국가들이 반발해 이 또한 여의치 않게 되었다. 아프리카연합(AU) 역시 양국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카다피의 퇴진 여부를 여전히 밝히지 않는 정부군에 반군이 중재안을 거부하면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한 눈에 보는 리비아 사태 총 정리]

1. 리비아의 지도자 카다피는 40여 년 동안의 독재 기간 동안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민심을 잃음.
2. 이웃 아랍국들의 민주화 혁명의 성공에 힘입어 리비아도 민주화 발발. 운동을 일으킴. (그러나 부족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민주화 운동이라기보다는 정권다툼 성격이 강해짐)
3. 시민들의 하야 요구에 카다피는 불복, 무력 진압에 들어가면서 내전
4. 내전에서 정부군이 우세. 시민군은 서방 국가들에게 도움 요청.
5. 서방 국가들의 승낙, 프랑스를 필두로 다국적군의 리비아 내전 개입.
6. 정부군의 대책 마련으로 다국적군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내전은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음

[TIP! 군사적 개입을 기권한 나라들]

유엔 회의에서 중국과 독일, 러시아 등 몇 개국이 군사개입을 탐탁치 않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리비아와의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리비아는 중동의 대표적인 석유 강대국이며, 특히 유황이 거의 섞이지 않은 질 좋은 석유인 경질유의 생산량이 세계 1위로 알려져 있다. 리비아의 석유 수출시장을 살펴보면 유럽이 85%를 차지한다. 리비아가 타격을 받을 경우 석유를 수입할 다른 루트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의 리비아 개입이 못 미더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는 리비아와 교역량이 1위이며, 러시아는 리비아의 무기 수입원으로 역시 1위이다. 중국의 경우는 무역적인 문제에 더불어 자국 내의 영향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국인 중국으로서는, 중동의 민주화 물결이 자국 내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고 있다.

[TIP! 2 아랍 국가들에 영향을 미친 지식정보사회]

정부의 여론 조작과 외신 차단은 국민들을 무지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었고, 이로 인해 장기집권은 계속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식정보사회에 접어들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Facebook, Twitter 등)가 발달함에 따라 상황은 바뀌게 되었다. 국민들은 국외의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자기 국가의 체제에 대한 반기심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 또한 국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돕는 촉매제 역할도 했다. 그들은 Facebook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분노의 날' 행사를 추진했다. 이 날은 추모 행사식이 있는 날이었지만, 행사 도중 국민들이 동시에 들고일어나 민주화 시위가 되었다.

요건몰랐지

창의관1층 건강관리실-학생증만 있으면 모든 약이 공짜! 누워서 쉴 수도 있다!
그러나! 너무 악용하지는 말자...

학복위-공을 빌릴 수 있다.
공강 시간에 심심할 때 빌려서 즐겁게 놀아요~

낙산관(체력단련실)-개인 라커룸과 샤워시설 완비! 일반 헬스장 못지않은 시설 우리 모두 비싼 돈 주고 일반 헬스장 가지 말고 학교헬스장을 이용합시다~

의회장-경기도 팔당소재.
학교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면 빌릴 수 있다.
인원은 10~50명 정도, 일반 민박집에 비해 매우 싼 가격에 대여해주니 싸게 MT를 가고 싶을 때 이용해보자~

학생상담실-성격진단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를 해줍니다.
자기가 어떤 성격인지 궁금하시다면 GOGO~

튜터링-학기 초 튜터링 제도 신청가능!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우리 모두 이런 기회 놓치지 말아요~

여러 장학제도-진리·지선장학, 한성복지, 디지털장학, 면학장학 등 많은 장학금 혜택!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보고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교육훈련지원금-취업을 목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는 교육훈련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 예를 들면 어학(어학연수 포함), 컴퓨터관련, 학과 전공 관련, 공무원대비, 각종 자격증취득교육 등이 지원대상당 학과 인정시 지원 가능 합니다.

2011년 지정의 모습

개강 전 새내기와의 만남☺



설레는 개강파티☺



즐거운 연합샷티☺



황제의 귀환, 신대체전☺



5월의 꽃, 대동제☺





편집후기

10 황주하

부장이 되니 부원이 있을 때와는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지정인의 방에 28대 학생회 편집부 부장이라고 인사드린 시점부터 저의 목표는 '역대 최고의 그림비', '같이남을 그림비'를 만들자였습니다. 11학년 편집부원들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니 책임감이 한층 더 강해졌습니다.

기사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중심이 되어 틀을 짜고 마무리 편집까지 모두 책임지고 그림비를 제작해보니 지금까지 그림비를 내셨던 선배님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좀 더 좋은 질의 그림비가 나올 수 있도록 기사들을 보시고 수정해주신 서은경 교수님, 박지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움을 주신 김유리 선배님, 황인영 선배님, 허지영 선배님, 심리나 선배님, 이상혁선배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사제출 시간을 어기지 않고 모두 제대로 제출해 준 동기들 후배들에게도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편집부 글을 쓰면서 얻은 것이 정말 많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서 여위숙 부장님과 선배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또 평소 카네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카네기 기사를 쓰면서 카네기에 대해 더 알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그 직책에 어울리게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 노력들이 그림비 라는 지식정보학부 학회지로 나오는 것이 정말 설렐니다. 제 이름을 걸고 만든 책이기에 더욱 더 애착이 갑니다. 뿐 만 아니라 편집부에 대한 자부심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강합니다. 편집부 일을 하며 얻은 것 중 가장 큰 것은 앞에 쓴 것처럼 부원 때와는 달리 책임감이 강해지고 자부심이 높아진 것, 그리고 교수님들, 선배님들, 부원들과 더 돈독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10 강영철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시원섭섭하다는 느낌이 크다. 사실 처음 편집부에 들어왔을 때는 그다지 편집부에 애정이나 책임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집부 활동을 해본 것도 아니고 그저 한 명의 신입 부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학년이 되어 편집부 차장이 되고, 11학년 편집부 부원들을 받아보니 슬슬 부담감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이끌고 그림비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컸다. 그러나 믿음직한 편집부 부장과 성실하게 잘 따라주는 후배들을 보며 조금씩 그림비에 대한 기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처음 그림비 작업을 시작했을 때, 인터뷰는 물론이고 기사를 쓰는 것, 모든 기사를 모아서 오타나 어색한 부분을 체크하는 것, 편집하는 것 등 모든 작업이 대부분 처음 해보는 작업이라 어색하고 막막했다. 하지만 없는 글재주를 끌어 모아서 나름의 최선을 다한 것만은 확실하므로 후회는 하지 않는다.

물론 이전에 선배님들께서 내셨던 그림비보다 더 뛰어나다고 자부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나름 우리의 노력과 고생 끝에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교수님들을 뵈고 충고도 듣고, 선배님들께 많은 도움을 얻고, 편집부 모두가 똘똘해서 일 했던 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은 순간들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번 학기가 끝나면 부장과 차장이 모두 군 입대를 하게 되는데, 2학기에도 11학년 편집부 부원들이 힘을 합쳐서 훌륭한 그림비를 낼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마지막으로 성심 성의껏 도움을 주신 교수님들, 많은 충고와 응원을 해주신 편집부 선배님들, 뒤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신 우리 28대 학생회, 편집부 부장 및 부원들, 이 그림비를 내는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

10 김정훈

처음에 그림비에 실릴 기사를 써야한다는 말에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편집부 부원으로써 꼭 해야 하는 일기에, 시작 하였습니다. 제가 그림비에 실을 기사는 취업창업지원팀을 소개하면서 무엇을 하고, 어떤 곳인지를 소개 해주는 기사였습니다. 취업창업지원팀이 어떤 곳인지 알기위해 우승식 주임님을 인터뷰 대상으로 정했고, 스케줄을 맞춰서 방문하였는데 우승식주임님은 반갑게 맞아 주시며 인터뷰 질문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해주시고 편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했고 다시 한번 찾아 뵈고 싶었습니다.

준비한 인터뷰 질문이 모두 끝나고, 우승식 주임님께서 학생들에게 취업지원팀은 항상 우리 학생들 모두에게 열려있으니까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찾아주세요. 라는 말을 남기셨어요. 사실 평소엔 우리가 학생증을 만드는 곳이 취업창업지원팀 이라는 것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만큼 이 팀에 관심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취업창업지원팀의 유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원하는 정보나 자기개발에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0 김푸름

나는 취업간담회 학교도서관과 취업지원팀의 기사를 맡아서 썼었는데 우리 과에서 많이들 꿈꾸는 사서교사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들과 미처 몰랐던 취업지원팀에서 하는 일 등 취업 관련 정보를 알 수 있었고 덕분에 취업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작년엔 그림비 제작을 하지 않았었는데 올해 만들 수 있게 되어서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참여했었다. 처음엔 막막했던 기사쓰기와 인터뷰도 막상해보니 재밌는 추억이 되었고 내가 참여한 이 그림비는 대학생들의 큰 한 페이지가 되어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보람찬 과 활동 중 하나가 된 거 같고, 알찬 그림비가 완성된 것 같아서 뿌듯하다.

10 유달리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해 보지 못한 경험과, 앞으로 다니면서 한 번도 해 보지 못한 경험들을 이번 편집부 기사를 쓰면서 한 것 같다. 국립중앙도서관을 살살이 살펴보고 그곳에 대해 많이 알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취업간담회를 통해 선배들의 소중한 경험을 듣는 기회도 있었다. 과제를 하러 그 선배님이 있는 도서관에 갔는데, 학교가 아닌 도서관에서 일하시고 계신 선배님을 뵈니 나의 미래도 환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또한 기사를 쓰면서 우리 과에 대한 애착이 가게 되었다.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나에게 이번 2학년 1학기의 경험은 나를 밝은 미래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게 했다.

일을 하는 동안 힘들고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 만큼 더 보람 있고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글재주가 없어서 잘 쓰지 못한 글을 많은 분들이 보신다고 생각하니 부끄럽다. 그리고 더 잘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많은 분들이 좋은 시선으로 그림비를 봐주셨으면 좋겠다.

편집부 일이 많아서 과제를 포기하면서 까지 그림비에 신경 쓴 부장, 차장에게 고맙다고, 그들을 열심히 따라주고 함께 고생한 부원들에게도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에 갈 때 많은 도움을 주신 서은경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 이도경

1학년 땀 그림비를 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기사를 써 본 적이 없어서 처음엔 막막하고 걱정도 많이 됐었다. 하지만 선배님들이 제작하신 그림비를 참고하고, 동기들과 함께 조를 짜서 인터뷰와 기사작성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손조롭게 기사를 완성할 수 있었다. 사실 2학년이 되었어도 취업지원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몰랐었는데 이번 인터뷰와 기사 작성을 통해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도움을 받았다. 내가 그랬듯이 이 그림비를 보는 동기, 후배들도 그림비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10 최서경

작년에 그림비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년도에 발행하는 그림비는 편집부원들의 많은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고의 그림비를 만들기 위해 부원들의 열정과 고생이 대단했던 만큼 좋은 결과가 있어서 정말로 기분이 좋습니다. 인문대 회장과 부회장을 인터뷰 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인문대를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림비를 편찬하면서 동기들과는 더 많이 친해지고 후배들과는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서 더 기뻐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인터뷰에 많이 참여하지 못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호빈 오빠한테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11 남궁은

모든 것이 새롭지만 한 3월, 선배님들의 권유로 편집부에 들게 되었다. 그 때는 편집부에 대해서 한 학기에 두 번, '그림비'라는 내가 속한 지식정보학과 소식지를 낸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다. 솔직히 그 당시에는 편집부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으므로 내가 집부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 정도만 존재했었다. 하지만 그림비 틀을 짜고, 인터뷰를 하고, 기사를 쓰기 위해 견학을 다녀오고 하면서 점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 같은 것이 생기기 시작했다. 물론 선배님들과 다른 부원들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었지만, 이번 그림비 작업을 하면서 내가 얻은 것은 글 쓰는 습씨뿐만 아니라 글을 보는 안목, 그리고 내가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었다. 그리고 그림비 발간을 앞두고 주말에도 학교에 나와서 기사 정리를 하고 오타 수정을 하느라 진땀을 뺐던 기억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이제 2011년 상반기 그림비가 나온다. 나는 내 이름을 걸고 교지를 낸 다는 것에 대한 설렘과 동시에 이번 그림비에 내가 누가 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제는 편집부에 대한 애정이 커졌다는 것이다. 그 동안 함께 도와가며 열정적으로 작업을 한 선배님들과 동기들, 그리고 교수님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전하면서 다음 학기에도, 그 다음 학기에도 늘 최고의 그림비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11 박대현

처음 지식정보학부 집부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부터, 편집부가 마음에 들었다. 중학교 시절에 교지편집에 참가했었고, 고등학교 때에도 문예부 소속으로 교지편집 일과 더불어 여러 문예활동을 했었다. 때문에 대학교에 와서도 그림비 제작활동을 한다는 편집부가 가장 눈에 띄는 수밖에 없었다.

그림비 제작활동을 하면서 이전 편집활동과 많은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일단 제작의 주체가 선생님이 아닌 학생들이라는 점이다. 모든 기사의 소재마련과 인터뷰, 작성, 수정 등 모든 일을 학생들이 관여해 처리한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던 예전과는 확실히 달랐다. 또한 그림비는 교지와 달리 한 학기에 한권씩 나온다는 점이다. 그만큼 양도 즐기는 하지만, 1년에 두 번이나 내 이름이 새겨진 책이 나온다는 것은 역시 보람 있는 일이다.

글을 쓰면서, 또는 다른 부원이 쓴 글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알아나가는 것도 재미있다. 학술정보관을 비롯한 교내의 유용한 사실들,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인줄로만 알았던 리비아 사태, 일본 지진에 대한 것들, 사서 선배 분들에게서 들은 취업 정보들. 책에 올라가기 전 수정해야 되는 글들은 독특한 맛이 있다. 감정이 격해지는 부분에서는 오타가 많다든지, 책 정보가 뒤바뀌어져 있다든지 하는 터무니없는 실수들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즐기며 수정하고 있으면 시간도 금방 흐른다.

편집 과정에서 과제나 시험이 겹치거나 해서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힘들었던 만큼 완성된 작품에 대한 애착이 강해지는 것 같다. 대학 새내기 생활을 바로잡아주고 편집을 총괄하신 황주하 선배님을 비롯한 선배님들에게 감사를 보내며 다음 그림비도 무사히 발간되기를 빈다.

11 박준수

1학년에 들어와서 처음 편집부를 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어색하게 설문지를 돌려보기도 했고 과제와 마감이 겹쳐서 밤을 새기도 하고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기사하나를 끝내고나서 보람찬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깊게 생각하기 보다는 주변의 권유에 의해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그림비 제작에 참여하며 중요성과 부담을 요즘에서야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림비 파이팅!! 편집부하이팅!!!!

11 안미현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거나 기껏해야 과제를 하느라 바쁘겠지 라는 생각밖엔 없었고 기사를 쓴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대학생활에 적응도 하고 놀기도 하고 과제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에 쫓긴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지 그림비를 만든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 처음 만들어본 그림비이기 때문에 기사를 계속 고쳐도 부족해 보였고 이렇게 쓰는 게 맞나? 하는 걱정도 많았다. 하지만 선배, 동기들과 같이 회의도 하고 도서관 탐방도 하고 기사도 쓰고 편집도 하면서 그림비를 만드는 과정은 아주 즐거웠다. 인터뷰가 취소되어서 못했던 게 좀 아쉬웠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하지 못했던 색다른 경험을 한 것 같아서 좋았다. 최고의 그림비를 목표로 만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일수도 있다. 하지만 나에게 이 그림비가 최고의 그림비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다음 그림비에서는 우리 과의 소식들을 더 알차게 담은 그림비가 나오도록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항상 더 발전된 그림비를 위해서 편집부 파이팅!

11 안혜선

처음 편집부에 들어갈 때는 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감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철선배랑 은호랑 함께 교수님 인터뷰도 하고 취업 상담회를 들으며 기사를 쓰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놀 때와는 다른 즐거움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편집 할 때에는 계속 수정을 해야 해서 힘들기도 하고 오타를 찾느라 눈도 아팠지만 제 이름이 들어간 그림비가 나올 생각을 하니 왠지 모를 뿌듯함도 들었습니다. 기사를 쓰면서 글쓰기 실력도 늘은 것 같아서 편집부에 들어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인터뷰를 하러 갔을 때 왠지 숙스럽기도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기사를 써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도 되고 막막하기만 했는데 선배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에 생각보다 수월하게 기사를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교수님과의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림비를 내기까지 힘들기도 했지만 제 이름이 적혀있는 책이 나올 생각을 하니 정말 뿌듯합니다.

11 이은호

드디어 수개월동안 애써왔던 그림비 작업이 끝이 났다. 새터 때 주하선배가 "편집부 들어올거죠?" 하셨는데 얼떨결에 "네? 네..." 해서 들어오게 된 편집부지만 지금 와서 돌아켜보면 편집부에 들어온 것이 나에게 정말 행운이었던 것 같다. 처음 편집부에 들어왔을 때는 "아 이거 잘할 수 있을까? 과제하기도 바쁘고 난 글쓰기랑은 거리가 먼데..." 걱정도 많이 했었다. 하지만 편집부 선배들이 말도 먼저 걸어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 인터뷰를 할 때도 힘들지 않게 잘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편집부는 교수님들이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고학번 선배들도 많으셔서 간간히 편집부원들끼리 외식을 할 기회가 있어서 부원들끼리 친목도 다지고 식사도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치킨 집에서 동그렇게 모여서 같이 회의했던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 비록 마지막에 최종 편집 할 때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내가 쓴 글들이 그림비라는 이름으로 완성되어 나온다고 하니 매우 뿌듯하다. 후반에 아르바이트 하게 되느라 참석을 많이 못해서 부원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2학기 때는 영철선배랑 주하선배가 군대를 가셔서 걱정도 많이 되지만 새로운 부장과 차장을 도와서 다음번엔 더욱더 멋진 그림비를 만들어야겠다.

11 임호영

고등학교 시절부터 블로그를 운영하며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나는 처음 부서를 정하라는 공지에서도 주저 없이 편집부를 선택했다. 글 쓰는 것을 좋아하는 하지만, 막상 내 이름을 걸고 기사를 내야한다면 부담이 된 것도 사실이다. 또 처음이라 되래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부담도 부담이었지만 이번 그림비 작업을 하는 동안 했던 여러 활동들을 통해 많은 경험을 하며 재미와 보람도 느낄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난생처음 설문조사를 해본 것이나 신간도서 여러 권을 읽은 경험 말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보람 있는 점은 자신의 이름을 길에 남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기회 아니면 언제 책에다 이름을 남기겠어~ 이는 분명 편집부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중의 특권이다. 이렇게 처음으로 참여한 '그림비'작업은 어렵기도 했지만, 재미도 있고 보람찬 활동이었다. 언제나 초심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초심 변치 말고 다음 학기에는 더 나은 그림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마지막으로, 편집부 파이팅! 그림비 파이팅!

11 정호빈

학교에 들어와서 편집부 일을 시작했던 게 얼마 되지 않은 거 같은데 벌써 상반기 그림비 편집후기를 쓰고 있다. 처음 써보는 기사라서 그런지 만족할만한 기사가 나오지 않은 게 아쉽다. 이번에 알게 된 일본지진 기사나 인문대 정·부학생회장 인터뷰... 먼저 일본 기사를 쓰면서 그 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기사를 쓰기위해 자료를 찾고 정리하면서 일들을 새롭게 알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인문대 정·부학생회장 인터뷰. 처음 해보는 인터뷰라서 그런지 처음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인터뷰 질문지 작성부터 다들 시간이 다르니 시간 맞추는 것부터 그 래도 겨우 인터뷰를 했지만 정리를 하려고 보니 인터뷰 지를 읽어 버려서 다시 인터뷰를 했던 일... 그때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후기를 쓰고 있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을 했다는 생각에 많이 기쁘다.

많이 부족한 글이지만 읽어주시는 지정과 선배님들 그리고 동기들 그리고 편집하는데 도와준 편집부 10선배님들과 11동기들 모두 감사하고, 이번 상반기 그림비를 시작으로 2학기 때 나올 하반기 그림비에서는 더욱 노력해서 좀 더 좋은 기사가 나올 수 있도록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이남을 편집부

편집부장 : 10 황주하

편집차장 : 10 강영철

편집부원 : 10 김정훈, 김푸름, 유달리, 이도경, 최서경

11 남궁은, 박대현, 박준수, 안미현

안혜선, 이은호, 임호영, 정호빈



발행일 : 2011년 6월 8일

발행처 : 지식정보학부 '길이남을 편집부'

발행인 : 10 황주하



지식정보학부
28대 학생회
길이 남을 편지입니다...